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는 역사학의 생명

《현대 한국사학사》 펴낸 조동걸 교수

어느 시대든 역사학은 당대와의 불화와 타협, 그리고 도피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부당한 정치권력인 진실의 발언을 불편해할수록 역사학에 부여된 중압은 무겁게 마련이다.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학이 그러한 궤적이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엄혹한 식민지배, 자유와 이성이 저당잡힌 분단과 독재체제 등 끊임없이 자신의 정당성과 양심을 검열해야만 하던 참담한 시대에 역사학은 더욱 고단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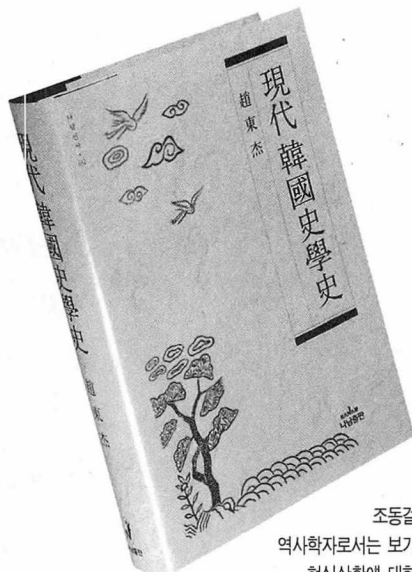
근현대 역사학의 운명 증언

국민대 조동걸 명예교수(67)가 펴낸 《현대 한국사학사》(나남출판)는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고단했던 운명에 대한 메타-역사적 증언이다. 1895년 학부 교과서로 편찬된 《조선역사》부터 1990년대까지 관찬(官撰)·사찬(私撰)으로 간행된 역사저술과 학자, 역사학 방법론, 역사 연구단체의 활동상을 엄밀한 사료해석으로 검증했다.

“전통시대의 역사서술은 중국 역사학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역사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자리잡는 것이 근대 역사학의 일차적인 과제였지요. 그러나 중화사관으로부터 미처 독립하기도 전에 일제의 식민사학이 유입됐습니다. 결국 근대 이후 한국 역사학은 중화사관과 식민사학으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해야 하는 두가지 과제를 안고 출발하게 된 셈이지요.”

1895년 조선후기의 실학사서(實學史書)를 계승한 《조선역사》를 근대 역사서술의 기점으로 삼은 이 책은 식민사학이 19세기 말 일제의 침략논리에서 형성됐음을 밝힌다. 식민지 시기에는 관념사학(유심론사학·문화사학)·사회경제사학(경제사학·유물론사관)·실증사학 등 민족주의 사학, 보편주의 사학, 고증학이 다양하게 발전됐음을 구명한다. 특히 식민지시대의 특성과 역사학 방법론에 따라 한국사학과 학자를 새롭게 분류해 학계의 논란이 예상된다.

“해방 이후에야 비로소 한국 역사학이 백화만발할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분단으로 남쪽에서는 유물사관을 금기시하고 북한에서는 유물사관만 존재해 기형적인 역사학이 돼버렸지요. 거기다 남한에서는 독



조동걸 교수는 역사학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현실상황에 대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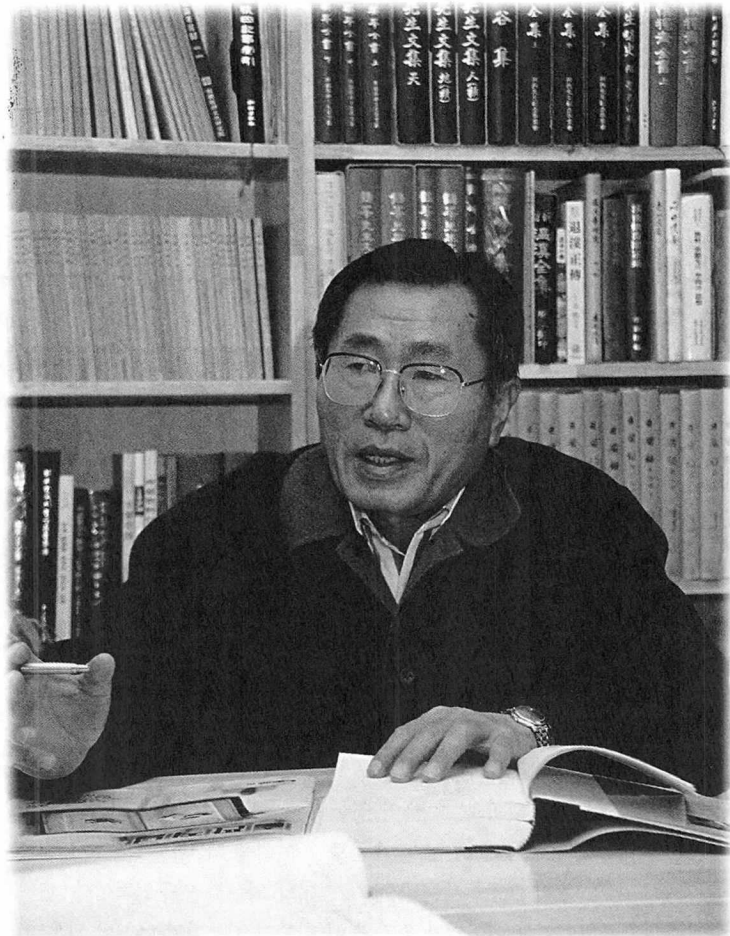
재·군사정권이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역사학 발전의 길이 봉쇄됐습니다.”

6·25를 기점으로 분단사학이 고착화되고, 4·19로 썩든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썩은 5·16으로 다시 잘려나간다. 하지만 그에 저항한 민족주의적 욕구는 역사학 연구를 더욱 부채질한다. 뒤이은 80년대에는 민중사학과 진보적 민족주의 사학이 조직적으로 확산되어간다. 이때의 역사학은 역사이론과 투쟁이론이 결합하는 실천사학이었고 유물론사학까지도 수용하기에 이른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남한의 역사학은 냉정을 되찾게 됩니다. 군사정권 이래서 엄밀한 논증 없이 거칠게 썼던 논문을 다시 가다듬고 미진했던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역사학은 분단사학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역사학을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민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역사학

근대 독립운동사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업적을 쌓아온 조교수가 ‘사학사’에 대한 논문을 쓰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오른다. 그 전에도 몇몇 학술지에 한국사연구의 〈회고와 전망〉을 써왔지만, 87년부터 〈한말사서와 그의 계몽주의적 허실〉 등 사학사와 관련된 10여편의 논문을 게재한 것이 계기가 됐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의외로 국내에 사학사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을 알았다. ‘근대 사학사’에 대한 개괄적인 정리와 역사학의 이론개발을 위해 지



“역사는 늘 새롭게 해석돼야 하고, 오늘의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아직도 현대사 연구를 기피하는 경향이 남아 있는데, 이는 과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거를 통해 미래에 대한 통찰을 담는 것, 거기에 역사학의 생명이 있습니다.”

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에 매달렸다. “근대 한국의 지성은 어디에 있었는가, 현대 지성은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하는가, 21세기 지성은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독립운동사 내지 근대사 연구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학 자체의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오늘날의 지성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이 책을 저술하게 됐죠. 일단 지금까지의 역사학을 매듭 짓고 후대에 정리된 역사학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민지와 분단 등 굴곡 많았던 근대 사학사를 마무리하면서 조교수는 민주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역사학을 정립할 것을 역설한다. 이 과제를 외면했을 때 역사학은 고증학이나 관념사학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올바른 사관 확립이 필연적

이다. 그가 힘주어 내세우는 것은 통합사관인 ‘문화사회사학’ 또는 ‘사회문화사학’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역사학은 문화사회사학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는 문화사학과 사회경제사학을 종합하는 통합사관입니다. 문화사학은 문화기능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한편 사회경제사학은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 역사가 발전한다고 파악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관은 모두 일면적일 역사이해일 뿐입니다. 각 시대에 따라서 어느 한 기능이 더 강조될 수는 있지만 역사는 사회경제와 문화적 기능의 종합적·통합적인 관계에 의해 형성됩니다.”

문화사회사학은 좌와 우를 아우르는 ‘제3의 사관’이기도 하다. 유심론이나 유물론처럼 인간을 편향되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민중과 계급을 포괄하는 인간사회를 정

행복한 책읽기, 가슴 깊이 남는 사랑과 지성

제3회 예영·도모 도서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Merry Christmas!

언제부터인가 겨울 방학철이 독서의 계절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입시, 졸업, 취업, 방학이 있어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계기를 갖게 되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보편적인 매체가 책이기 때

문입니다. 이상 기온으로 혹독한 추위가 예상되는 올 겨울에는 사람들을 집에 꼭꼭 묶어 놓으면서 더없는 독서의 호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출판계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판계는 독자들이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영에서는 몇 년 전부터 매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책을 사랑하는 분들을 초대하여 도서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저자, 독자, 도서관 담당자들을 초대하여 출판 상담, 독서 상담도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행복한 책읽기, 가슴 깊이 남는 사랑과 지성”으로 주제를 정한 이번 도서축제는 지난 6월에 문을 연 20평의 좁은 도모 매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이틀에 그쳤지만 올해는 12월 14일(월)부터 19일(토)까지 일주일 간 합니다.

이 기간에는 출판 전문인으로 현재 실직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드리기도 하고, 좋은 경력자를 구하는 출판 경영자들에게 유능한 일꾼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출판계 진출을 희망하는 새내기들에게 조언도 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경력과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프리랜서들은 심사하여 아르바이트 일을 드리기도 합니다. 원고를 쓰고 현재 출판을 고려중인 작가들에게는 상담도 해드립니다. 출판 경영이나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자문을 해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독서 상담과 어린이 진로 상담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영은 작은 회사이지만 그만큼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무료입니다. 이것이 예영커뮤니케이션이 한국의 출판계에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따뜻한 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 오십시오.

*도서축제 기간 중 상담을 원하시면 미리 연락하셔서 시간을 예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회 예영·도모 도서축제

기간 : 1998. 12. 14(월)~1998. 12. 19(토) 09:00-19:00

장소 : 가정전문서점 도모(T. 851-2248)

예영커뮤니케이션 · CUP 152-059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19-1

출판부 T.851-2247 출판유통사업부 T.830-8566 F.830-8567 도모사업부 T.851-2248
CUP는 예영커뮤니케이션에서 위탁 경영하는 출판사입니다

직하게 바라볼 수 있기에 인간주의와 연결된다. 이는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종합하는 '보편적 민족주의' 혹은 '다원적 세계주의'와도 이어진다.

“지난 20세기는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제국주의적 세계주의가 지배해왔습니다. 다른 민족과 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민족주의, 서구 자본주의의 문화적 패권에 의한 세계화였습니다. 내가 말하는 다원적 세계주의란 각 민족의 특수한 문화가 존중되면서 세계 문화의 보편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조교수는 이를 곧잘 교향악과 꽃밭으로 비유한다. 교향악은 첼로·바이올린·비올라 등 특색 있는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천상의 화음을 이루고 꽃밭은 울긋불긋한 꽃들이 하나로 모여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때문이다. 악기와 꽃들을 개체로 보면 보편적 민족주의가 되고 전체로 보면 다원적 세계주의가 된다.

조교수가 가장 존경하는 현대의 지도자는 넬슨 만델라다. 그가 27년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세상에 나왔을 때 얼굴에 자비로움이 넘쳤다. 감옥 속에서도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 않은 것에 감동한 것이다. 95년 7월에 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국회 연설회장에서 그의 회견을 듣기도 했다.

“그때 만델라의 마지막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 색깔의 사람들이 무지개처럼 하나되어 인류공영에 이바지하자’고 말하더군요. 이는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한 다원적 세계주의와 일맥상통했습니다. 결국 그와 나의 생각은 보편적 인간주의로 수렴될 수 있을 겁니다.”

실천학문으로서의 역사학

역사학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조교수는 현실상황에 대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이 책에서도 문민정부가 정경유착을 방관하고 무능하게 정국을 운영해 IMF체제를 초래한 데 대해 역사학의 비판을 주문하기도 하고, 국민정부의 대미 종속상태의 심화와 형식논리에 빠진 문화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발언의 근거에는 역사학을 실천학문으로 인식하는 그의 사관이 놓여 있다.

“역사는 늘 새롭게 해석돼야 합니다. 또한 오늘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대사 연구를 기피하는 경향이 남아 있어요. 현대사는 학문의 대상으로 객관적인 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는 현대사 연구를 금기시했던 과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과거를 통해 미래에 대한 통찰을 담는 것, 거기에 역사학의 생명이 있습니다.”

조교수가 독립운동사 연구에 몰두하게 된 것은 한 역사학자와의 인연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60년대 중반 경북대를 졸업하고 춘천교육대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 당시 근대사 연구의 대가였던 홍익섭 교수와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다. 69년에는 홍교수의 추천으로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에서 상임조사위원·집필위원으로 발탁됐다. 이때부터 독립운동사 연구를 필생의 주제로 삼아 정진해왔다.

춘천교대와 안동대를 거쳐 81년부터 국민대에서 근대사 강좌를 맡아 후학들을 양성해왔다. 지난해 8월 정년퇴임한 후 국민대·중앙대 대학원에서 독립운동사와 사회사를 강의하고 있다. 지난 8월에 출간된 《한국 근대사의 이해와 논리》와 함께 지금까지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한국근대사의 시련과 반성》·《한국 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 연구》·《한국근대사의 서가》 등 10여권의 저서를 펴내 근대사 연구를 두텁게 해왔다.

“역사학도로서 필화사건에 연루됐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73년 <민주 독립군 전투사>에 ‘조선공산당 만주총국과 김일성 문제’ 부분이 문제가 됐지요. 정부기관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글을 삭제당했습니다. 지배권력과 갈등은 역사학자의 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람도 있었지요. 무엇보다 연구 성과를 책으로 펴낼 때, 그리고 동료학자와 후학들이 애정어린 비평을 해줄 때지요.”

조교수는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데 조심스럽다. 자신의 발언에 구속과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역사학자로서 운명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역사학의 인식지평을 넓히는 데 여생을 바치리라는 것이다.

— 박천홍 기자